

## 테러 이슈

### 국가데이터처, 「사회적 관심계층 생활 특성」 분석결과

↑ 前) 통계청

국가데이터처는 '25년 1분기 통신사 통계자료, 카드사 이용실적·신용정보, 민간 공공 데이터를 분석해 '사회적 관심 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결과'를 발표

#### □ 주요내용

- 국가데이터처는 '은둔형 외톨이'에 관한 통계를 집계한 것은 처음이라며, '25년 1분기 기준으로 고령층, 청년층, 금융소외층, 교류저조층(외톨이) 등 4대 취약 계층의 경제·사회활동을 다각도로 조명

※ 교류저조층은 한달 통화·문자 발신 건수 하위 약 10%(500건 미만)이면서, 동시에 연락하는 상대방이 하위 약 15%(20명 미만)인 내국인으로 설정

- **(실태)** '외톨이(교류저조층)'은 전체 내국인의 4.9%인 약 250만명에 달하며  
- 이들은 한달간 평균 11명의 상대와 연락을 하고 전화 거는 횟수도 하루 평균 1회 남짓으로 이는 고령층(6회)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

\* 성별로는 남성(5.1%)이 여성(4.9%)보다 많았고 지역별로는 비수도권(5.0%)이 수도권(4.8%)보다 높음

- **(경제)** 근로자 비율(26.2%)은 전체 평균(64%)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상시근로자 비중(52.8%)도 전체 평균(67%)보다 저조하는 등 경제적 기반 취약

\* 일용근로자(25.7%)와 자영업자(21.5%) 비중은 전체 평균 각각(14.1%·18.8%)보다 높게 나타났으며,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64만 6,000원 수준

- **(기타)** 하루 평균 외출 시간(1.3시간) 및 이동거리(10.3km)도 각각 전체 평균(2.8시간·24.1km)의 절반 수준이며 외출하지 않는 시간은 주로 인터넷·TV 시청(약 9시간)으로 전체 평균(100분)보다 높음

#### □ 시사점

- 복지 사각지대는 안보 사각지대로 전이 될 수 있기에 테러 사상이나 극단주의 이념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교류저조층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

## 지역별 테러 동향

### 아·태

- 韓, 산책 중 여성 근처 무쇠 축 화살 발사
  - 1.8 언론은 청주시 청소년 광장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과 평화의 소녀상 사이로 무쇠축 화살이 날아왔으며, 경찰에 따르면 테러를 포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보도
    - ※ 경찰은 우발적이든 사람이거나 평화의 소녀상을 겨냥하였든지 간에 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화살을 발사한 남성 2명을 추적 중이라고 발표
- 韓 경찰, 모든 테러 협박건에 손해배상 청구 방침 발표
  - 1.8 언론은 오송역에 폭발물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을 체포했으며, 경찰에 따르면 테러 협박글에 무관용 원칙으로 모든 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보도
    - ※ 지금까지는 대규모 경찰 인력 투입 등이 있었던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, 앞으로는 모든 손해를 고려해 청구할 것이라 부언
- 태국, 주유소 11곳 동시다발 폭탄 공격 발생
  - 1.12 언론은 태국 남부에서 이슬람 분리주의 세력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이 주유소 11곳을 연쇄 폭탄테러와 방화로 3명이 다쳤으며, 당국은 통행금지와 최고 수준의 보안 조치를 시행했다고 보도
    - ※ 언론은 태국이 불교 국가지만 일부 남부 주들은 인구 80%가 무슬림이며,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이 독립을 요구하며 테러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부언
- 파키스탄, 폭탄테러로 경찰관 7명 사망
  - 1.13 언론은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에서 장갑차를 겨냥한 급조폭발물 테러가 발생하여 지역 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7명이 사망했으며 파키스탄탈레반(TTP)이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다고 보도
    - ※ 최근 파키스탄 북서부에서는 잇따른 경찰차 공격으로 남카라크에서 경찰관 5명, 데라 이스마일 칸 지역에서 경찰관 3명이 사망

## 미 주

- 美, 미군 공격한 시리아 IS에 대규모 보복 공습
  - 1.11 언론은 미국이 시리아에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겨냥해 공습했다며 이번 공습은 지난달 13일 IS의 기습 공격으로 미군 2명과 미국인 통역사가 숨지자 보복 차원에서 개시했다 보도
    - ※ 이번 공습은 ‘호크아이 공습 작전’의 일환으로 시리아 중부 여러 지역에서 70곳이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다 부언
- 美, 대형 행사 테러 위협 대비 드론 대응 프로토콜 구축
  - 1.13 언론은 美 국토안보부(DHS)가 다가오는 북중미 월드컵과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의 안전확보를 위해 드론 대응 기술에 1600억원을 투입하여 경기 및 행사 방해행위(테러포함) 예방에 노력 중임을 보도
    - ※ 특히,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최근의 전투 사례에서 드론을 공격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대세로 자리 잡음에 따른 필수적인 조치라고 부언

## 중 동

- 시리아, 이슬람국가 고위 지도자 체포 발표
  - 1.10 외신은 시리아의 합동 보안 작전 중 IS 고위 지도자를 체포했다며 체포된 인물은 최근 몇 달간 테러 작전을 계획하고 군사 및 보안 시설을 공격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
    - ※ 최근 시리아는 다마스쿠스 남부 다라야 지역에서 7명으로 구성된 테러 조직을 소탕했다 부언
- 이란, 반정부 시위로 500여 명 사망·1만 명 이상 체포
  - 1.12 언론은 이란 경제난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정권 퇴진·왕정복고 요구로 격화돼 미·유럽으로 확산됐고, 대사관 집회와 차량 돌진 사고 및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수백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

## 역사 속 테러사건

### 보코하람, 차드 수도 은자메나 대통령 궁 총기 테러

- '25. 1. 8일 무장괴한들은 차드의 수도인 은자메나에 있는 대통령 궁을 습격
  - 24명의 무장괴한들은 대통령 궁의 보안 게이트를 통해 침입을 시도 하였으나 보안군에 의해 저지, **총 19명 사망**(무장괴한 18명, 보안군 1명)
- 차드 외교부 장관은 이번 공격에 대해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아니었다고 부인하며 무장괴한들을 그저 무질서한 강도로 설명하였으나,
  - 소식통에 따르면, 2014년부터 차드에서 준동하고 있는 지하디스트 그룹인 **보코하람**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추측
-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차드엔 사헬 지역에는 프랑스 군사 기지가 있었으나, '24.11월 말 프랑스와의 방위 및 안보 협정을 종료함에 따라 1000여명의 프랑스 軍 철수
  - 이후, 차드 정부는 외부 군사 지원 변화로 인해 자체 대응 부담이 증가되는 가운데, **보코하람**은 차드 서부 국경지역과 차드 호수 지역에서 지속적인 공격을 수행 中

## 테러 상식

### < 보코하람(Boko Haram) >

- (결성) '서구식 교육은 죄악' 이라는 뜻이며, '02년 「무함마드 유수프」가 조직
  - \* 테러단체 지정 : 영국('13.7), 미국('13.11), UN('14.5)
- (핵심인물) 「바쿠라 사알라바」(現 최고 지도자)
- (활동지역) 나이지리아 중·북부, 카메룬 북부, 차드 서부, 니제르 남동부 일대
- (활동수법) 對정부 게릴라戰, 마을 습격 및 민간인 무차별 학살
- (참고사항) '15.3월 「아부바카르 셰카우」가 ISIS에 충성을 맹세하였으나, '16.8월 ISIS가 「알 바르나위」를 신임 지도자로 임명하자 내분 발생, 이후「아부바카르 셰카우」가 이끄는 보코하람과 「알 바르나위」의 「ISIS-西아프리카지부」로 분열, '21.5월 두 조직간 내부 충돌에서 포위되자 「아부바카르 셰카우」 자폭